

〈발표3〉

## 이주여성의 문화변용 유형과 판별요인에 대한 고찰

최혜지(서울여대)

### 1. 문제제기

문화적 차이는 민족 또는 국가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집단의 성격을 규정하는 다양한 특성들을 축으로 집단은 수없이 다양하게 분할 될 수 있으며, 나뉘어 진 하위집단들은 인접한 여타의 집단과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차이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던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외국인의 유입이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부터이다. 노동력 수급이 초국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신부부족과 도시지역의 돌봄 및 가사노동력 부족이 저개발국가 여성들의 경제·사회적 지위상승의 욕구와 맞물리면서 촉발된 외국 여성의 유입이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시키는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외국 이주여성의 적응은 이주여성의 사적 과제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과제임이다. 그런데 이주여성의 문화변용을 살펴 본 연구들은 이들 여성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경고한다. 많은 이주여성들은 한국과 출신국가 사이의 경제·사회적 차이에 의한 국가간 서열과 성적 계급이 빚어낸 이중적 억압을, 남편의 폭력, 가족으로부터의 소외와 멸시, 또는 사회적 편견의 형태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인순, 2005; 김정선, 2004).

이주여성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차세대 생산과 양육을 담당할 인적 자원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문화변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한국사회의 주요과제일 수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에 앞서 이들의 문화변용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권복순·차보현 2006). 특히 이주여성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증가(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주여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이들의 다원화된 인구사회학적 구조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이주여성을 출신국가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순화하여 이들의 문화변용 경험을 집단적 차원에서 규명할 뿐 이주여성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문화변용의 다원성에 주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베리(Berry, 1980)는 이주여성은 원(모국)문화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토착)문화에는 어느 정도 적응했는가에 따라 네 가지의 문화변용 유형을 경험한다고 설명한다. 이주여성이 다원화된 것은 물론 문화변용의 경험 또한 다차원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주여성의 문화변용에 대한 연구는 이주여성의 다양한 특성과 문화변용의 다원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본 연구는 이주여성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이들의 문화변용 유형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정책적 개입의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따라 제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여성의 개인, 가족, 이민관련, 심리적 특성에 따라 문화변용 유형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이주여성의 개인, 가족, 이민관련, 심리적 특성은 이들의 문화변용 유형을 예측하는가?

## 2. 문화변용이론

문화적 변화(Cultural Change)는 문화변용을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두 개 이상의 문화적 체계가 직접 결합함으로써 시작되는 반면, 문화변용은 두 문화의 충돌로 인해 야기된 생태적 또는 인구학적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변화와 차이를 보인다(Berry, 1980). 즉 문화변용(Acculturation)이란 문화적으로 상이한 배경을 지닌 이주집단이 토착집단의 문화와 지속적으로 접촉함에 따라 생겨난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주집단의 문화는 물론 토착집단의 문화에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Redfield, Linton, & Herskovits, 1936, p.149).

문화변용에 대한 이론적 시각은 문화변용의 일차원성을 강조하는 단일차원문화변용(Unidimensional acculturation)이론과 문화변용을 이차원적 구조로 설명하는 다차원문화변용(multidimensional acculturation)이론으로 대표된다. 단일차원문화변용이론은 문화변용을 원문화에 대한 몰입의 단계에서 출발하여 토착문화에 대한 몰입(immersion)으로 종결되는 하나의 연속선(single Continuum)적 현상으로 개념화한다(Gordon, 1995). 그러나 1980년 이후 단일차원이론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문화변용을 새로운 각도에서 설명한 다차원이론이 제시되었다. 다차원이론은 문화변용은 이주집단의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 유지' 즉 원문화에 대한 방향성과 '토착문화에 대한 참여와 접촉' 즉 토착문화에 대한 방향성이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차원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Marin & Gamba, 1996). 그리고 문화변용의 과정동안 개인이 경험하는 원문화에 대한 방향성과 토착문화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 주변화, 분리, 동화, 통합의 네 가지 문화변용 유형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Berry, 1980).

원문화의 정체성 유지에 관심이 없거나 정체성 유지의 정도가 낮고, 차별 또는 배제의 경험으로 인해 토착문화와 관계 맺는 것에도 관심이 없는 경우를 주변화 유형이라 한다(Berry, 1980). 개인이 원문화의 정체성 유지에 가치를 두는 반면 토착문화와의 상호작용에는 소극적인 경우 분리유형으로 구분한다. 동화유형은 개인이 원문화의 정체성 유지를 원하지 않고 토착문화와의 상호작용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경우이다. 끝으로 개인이 원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토착문화와의 상호작용에도 적극적인 경우를 통합 유형이라 한다. 통합은 토착집단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일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Berry, 1991).

## 3.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및 조사대상

자료수집은 6개월 이상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13개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관과 15개 전국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시점 당시 해당 기관의 다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여성 중 조사에 동의한 346명의 이주여성만을 조사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조사도구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영어의 7개 언어로 작성되었다. 조사도구의 배포와 수거는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은 자기보고방식을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문화변용유형은 쿠엘러와 동료들의 연구(Cueller 외, 1995)에 근거하여 원문화유지도와 토착문화적응도를 이용하여 구분하였다. 원문화유지도와 토착문화적응도 모두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이상은 상위집단으로 평균미만은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원문화유지도와 토착문화적응도 모두 상위집단에 속한 이주여성은 통합 유형, 원문화유지도가 상위집단에 그리고 토착문화적응도는 하위집단에 속한 이주여성은 분리 유형, 원문화유지도가 하위집단에 그리고 토착문화적응도가 상위집단에 속한 이주여성은 동화 유형, 끝으로 원문화유지도와 토착문화적응도 모두 하위집단에 속한 이주여성은 주변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원문화유지도와 토착문화적응도는 Cuellar와 동료(1995)들이 개발한 'Acculturation Rating Scale'을 통해 측정하였다. 회복력은 Kathryn과 동료들(2003)이 개발한 'The Connor-Davison Resilience Scale'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처전략은 Carver가 1989년 자신이 개발한 60문항 대처전략 척도를 1997년 28문항으로 간략화한 Brief COPE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 3)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stepwise 선택을 통한 판별분석이 사용되었다

## 4. 연구결과

### 1) 이주여성의 문화변용 유형

이주여성은 평균 20.63(sd=4.88)점의 토착문화적응도를 보였으며 토착문화적응도의 범주는 최소 7점에서 최고 30점으로 비교적 넓게 나타났다. 이주여성의 원문화유지도는 평균 22.56(sd=5.08)점으로 토착문화적응도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최소 6점에서 최고 30점의 범주를 보였다. 문화변용 유형을 살펴보면, 주변화 유형에 해당하는 이주여성은 36.99%, 분리 유형에 해당하는 이주여성은 17.63%, 동화 유형을 보인 이주여성은 15.03%, 통합 유형에 해당하는 이주여성은 30.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통합과 주변화 유형이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이주여성의 특성에 따른 문화변용 유형의 차이

#### (1) 개인적 특성에 따른 문화변용의 차이

북한출신 이주여성은 47.46%, 일본출신 이주여성은 35.48%, 중국출신 이주여성은 46.53%, 태국출신 이주여성은 57.14%, 필리핀출신 이주여성은 37.29%가 주변화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출신 이주여성은 60.47%가 통합 유형을 보여, 다른 국가출신의 이주여성과 비교해 통합 유형을 보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화변용 유형에 따른 이주여성의 연령 차이를 살펴보면, 주변화 유형을 보인 이주여성 124명의 평균연령은 35.21세로 가장 높았으며 통합 유형에

해당하는 이주여성 103명의 평균연령은 27.68세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교육년수는 분리 유형에 속한 이주여성이 10.73년으로 가장 높았으며 통합 유형에 해당하는 이주여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이주여성은 주변화 유형, 직업을 갖고 있는 이주여성은 통합 유형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 (2) 가족적 특성에 따른 문화변용의 차이

배우자가 있는 이주여성의 문화변용 유형은 주변화 유형이 34.04%, 통합 유형이 34.04%로, 주로 주변화 또는 통합 유형으로 양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이주여성은 주변화 유형을 보이는 경우가 50.82%로 주변화 유형에 해당하는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는 통합 유형에 해당하는 이주여성이 12.11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수는 동화 유형에 속한 이주여성이 평균 1.76명의 자녀를 두어 나머지 세 유형에 속한 이주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자녀 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이주여성의 이민관련 특성

한국에 거주한 평균기간은 동화 유형을 보이는 이주여성이 5.38년으로 가장 높았으며, 통합적 문화변용을 보인 이주여성이 3.64년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출신국을 떠난 이유와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따라서는 문화변용 유형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이주여성의 심리적 특성

심리적 회복력은 분리 유형을 보이는 이주여성 집단이 68.64로 높은 반면 동화 유형의 이주여성은 61.44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능력 또한 분리 유형에 속한 이주여성이 8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3) 이주여성의 특성을 이용한 문화변용 유형 예측

판별분석의 stepwise 선택결과, 유배우자, 동남아시아, 자녀의 수, 연령, 학력이 이주여성의 문화변용 유형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분석에 사용된 133명의 이주여성 중 예측된 문화변용 유형이 관찰된 문화변용 유형과 일치하는 여성은 36%인 48명에 그쳐, 40% 미만의 낮은 판별력을 보였다. 그러나 통합 유형의 경우, 81.08%의 여성이 통합 유형으로 예측되어, 판별분석에 사용된 개인적 특성, 가족관련 특성, 이민관련 특성, 심리적 특성이 통합 유형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결론 및 논의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문화변용은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토착문화의 적응수준 모두 낮은 주변화 유형과 원문화유지와 토착문화에 대한 적응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통합 유형에 집중되는 양태를 보였다.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 국적, 낮은 연령, 짧은 교육년수, 직장 있음, 유배우자, 배우자와의 높은 연령 차, 적은 자녀의 수, 짧은 거주기간은 통합 유형을 보인 이주여성의 특성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 높은 교육년수, 배우자와의 상대적으로 적은 연령차, 적은 수의 자녀는 분리 유형과 상관을 보였으며, 높은 연령, 많은 수의 자녀, 상대적으로 긴 한국거주기간, 낮은 회복력과 낮은 대처능력이 동화와의 연계성을 보였다. 북한과 중국·일본 국적, 특히 높은 연

령과 높은 교육년수, 직업 없음, 무배우자, 배우자와의 낮은 연령차, 낮은 대처능력은 주변화 유형과 연관된 것으로 정리된다. 또한 이주여성의 개인적, 가족적, 이민관련, 심리적 특성은 이주여성의 문화변용 유용을 예측하는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으나, 통합 유형만은 80%이상의 높은 예측도를 보였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적, 연령, 교육년수, 유배우자, 자녀의 수가 문화변용 유형을 유의미하게 판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와 유사성이 높은 북한이나 중국 출신 이주여성에서 주변화 유형이 가장 보편적으로 관찰되고 문화적 상이함이 상대적으로 큰 베트남 이주여성에서 통합의 유형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북한이나 중국출신 여성은 원문화유지와 토착문화적응 모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베트남 출신 여성은 상대적으로 원문화유지는 물론 토착문화적응도 순조롭게 이루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원문화와 토착문화 사이의 문화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토착문화적응의 어려움이 낮다는 선행연구(Berry, 1976; Minde, 1985)의 결과와 상이하하며, 특히 북한이주여성들과 중국 조선족 이주여성은 한국인과 민족적 뿌리가 동일하여 한국문화 적응에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이주여성들과 중국 이주여성이 베트남 이주여성이 원문화유지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코시안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권복순과 차보현(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원문화와 토착문화 사이의 문화적 유사성은 이주여성의 토착문화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보다 오히려 원문화를 상실하는데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베트남 이주여성은 모두 배우자가 있는 반면 북한과 중국 이주여성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배우자 유무가 이주여성의 문화변용 유형과 관계되었다는 점에서 이주여성의 출신국가와 배우자 유무의 상관성이 이주여성의 문화변용 유형에 차이를 만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토착문화적응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Berry, 1976; Berry & Kim, 1987)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분리와 주변화 유형 즉 토착문화적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주여성의 교육년수가 높게 나타나 기존연구와 대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교육적 배경이 높은 이주여성일수록 출신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며 따라서 한국에 이주한 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대적으로 불만족할 가능성 역시 높기 때문에 한국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론된다.

한국거주기간이 통합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짧게, 분리와 주변화 유형에서 중간으로, 그리고 동화 유형에서 가장 길게 나타난 것은 토착문화적응도가 이주초기에 높게 나타나고 이후 감소하는 단계를 거쳐 점차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된다는 애킨슨(Atkinson, Morrion, and Sue., 1998. 금명자, 권해수, 이희우 2004 재인용)의 연구결과를 한국에 유입된 이주여성을 통해 재검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화 유형의 이주여성에서 자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권복순·차보현(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를 한국인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자녀양육의 방향성과 이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이주여성의 한국문화적응에는 긍정적으로, 원문화의 유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주변화 유형에 속한 여성의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원문화와 토착문화가 충돌한 갈등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대처능력이 낮은 여성은 두 문화 모두를 포기하는 것으로 갈등상황에 대처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동화 유형에 속한 여성의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회복력이 낮은 여성의 경우, 토착문화적응의 과제 때문에 심리적으로 분리하거나 축소시켰던 원문화 정체성을 토착문화적응이 이루어진 후에 심리적으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

화의 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이주여성의 개인적, 가족적, 이주관련 및 심리적 특성은 이들 여성의 문화변용 유형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여성의 적응지원을 위한 향후 정책들은 이주여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단순화하고 동일한 문화변용을 과정을 경험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평면적 접근을 지양하고 이주여성의 특성에 따라 다면적이고 다원화된 접근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인순. 2005. "이주여성의 차별과 폭력경험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원도청. 2001. 『외국인 주부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토론회 자료집』 .
- 권복순 · 차보현. 2006. "농촌지역 코시안가정주부의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지』 . 58(3): 109-134
- 김이선 · 김민정 · 한건수.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 한국여성개발원.
- 김엘림 · 오정진. 2001.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10-20.
- 김정선. 2004. "이주노동자 남성과 한국 여성의 '가족'만들기를 통해 본 지역 가부장제의 변형 및 재구성". 『국가횡단시대 변화하는 아시아의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18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년 6월 4일. 5-41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경제와 사회』 . 70: 10-37
- 문경희,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1세기 정치학회보』 16(3): 67-93
- 민가영. 2004. "글로벌 자본과 로컬 가부장의 충돌과 공모: 조선족 여성이주를 둘러싼 조선족 사회의 '여성유실' 담론을 중심으로". 『국가횡단시대 변화하는 아시아의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18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년 6월 4일. 43-71
- 박종삼. 1982. "한미 국제결혼에서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의사전달 갈등의 이론적 고찰". 『숭선대학교 논문집』 12:00-136
- 박현정. 2004. "광주 · 전남지역 국제결혼 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광주 · 전남지역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 광주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1-34
- 설동훈 · 김윤태 · 김현미 · 윤홍식 · 이해경 · 임경택 · 정기선 · 주영수 · 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 서울: 보건복지부.
- 송성자. 1974.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부부갈등: 미8군 정신위생과에 의뢰해 온 미국군인배 우자를 가진 한국 여성을 중심으로 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과 석사학위논문.
- 신경희 · 양성은. 2005.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5): 1-8
- 양정화. 2004. "이주여성의 차별과 폭력경험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NGO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 윤형숙. 2004AB.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움 발표 논문.
- 이금연. 2003.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국경과 인종, 피부색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평등과 연대를 향해』 . 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

- 이윤애. 2004. 『전북지역 외국인여성 정착지원 방안』.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 임경혜. 2004.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안나. 2005.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가족관계와 초국가적 연망”.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한국염. 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3주년 심포지엄: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1-16
- 홍기혜. 2000.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6. 이주인구통계
- Berry, J. W. 1976. *Human ecology and cognitive style: Comparative studies in psychological adaptation*. New York: Sage Halsted.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pp. 9-25. in A. M. Padilla(Eds.), *Acculturation: Theories, models and findings*. Boulder, CO: Westview.
- Berry, J. W. 1991. *Managing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for problem prevention: In Mental Health Service for Refugees*.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IMH.
- Berry, J. W., and T. Blodel. 1982. "Psychological adaptation of Vietnamese refugees in canada." *Canadian Journal of Community Mental Health* 1: 81-88
- Berry, J. W., and U. Kim. 1987. "Accultural and mental health." Dasen, P, Berry J. W and N. Sartorius(Eds.). *Cross-Cultural Psychology and Health Towards Applications*. London
- Berry, J. W., U. Kim., T. Minde, and D. Mok.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491-511
- Berry, J. W., and M. Kostovick. 1983. "Psychological adaptation of Malay stuents in Canada." Paper presented at Third Asian Regional conference of IACCP, Kuala Lumpur
- Cabassa, L. J. 2003. "Measuring acculturation: Where we are and where we need to go." *Hispanic Journal of Behavior Science* 25(2): 127-146
- Cuellar, I., B. Arnold, and R.Maldonado. 1995. "Acculturation rating scale for Mexican Americans-II: A revision of the original ARSMA scale." *Hispanic Journal of Behavior Science* 17(3): 275
- Graves, T. 1967. "Psychological acculturation in a tri-ethnic community." *Sothea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23: 337-350
- Redfield, R., R. Linton., and M. J. Herskovits. 1936.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 149-152
- Ryder, A., L. Alden., and D. Paulhus. 2000. "Is acculturation unidimensional or bidimension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49-65